지속가능 미래 위한 새로운 시작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창립총회, 오늘 국회서 개최… 장기적인 발전 전략 모색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의 창립총회가 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준비위원회(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정진욱)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총회 회칙 의결', '정관의결 및 향후 계획보고' 등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대전환시대,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류성민 경기대 교수(한국기업경영학회장)의 강연이 진행된다.

박찬대 대표 의원은 "이번 포럼 및 창립총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희승 연구 책임의원은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진욱 연구 책임의원은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은 기후 위기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속 산업의 대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국가 성장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가산업 전략 및 방향 설정, 미래 비전 등 정책전략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만호 기자

현행 '전북특별법' 내용 보강

국힘 조배숙 의원, 전북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마트제조혁신기업 지원 특례 등 11개 특례 담아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비례, 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조배숙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 농생명 인력양성 및 전북형 청년 농업인의 지원 근거 마련, 지역특화 전략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권한 이양과 산림규제 완화 등 '전북특별법'을 보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 자동차 중 특수 설비를 도내 다른 장소에서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바이오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했다.

더불어 전국 최초 '민관 상생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기업 인증 및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내용도 포함시켰다.

무엇보다 제주특별법 처럼 전북특별법에도 안정적인 재원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방교부세 특례,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올해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전북형 청년농업인 지원,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상열차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추가하는 등 기존의 조문을 보강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 내 유일한 여당 소통 창구로서 연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는 물론 정부·여당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남원시의회는 이숙자 의원이 지난달 26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충효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에서 주관한 '2024 한국사회를 빛낸 대한민국 충효대상' 의회부문 '지역경제산업 의정발전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충효대상은 정치·사회·경제·문화·교육·스포츠를 비롯한 각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은 했다.

이숙자 의원은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남원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남원시 관내 버스터미널 개선방안 △스포츠산업화 도시 실현방안 등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시 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왔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수여하게 되어 감사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표결처리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영화산업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민주 김윤덕 의원, 법안 대표발의

"방송에서 심의 거친 광고 재검토, 시간·자원 낭비"

지난달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이 영화광고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나 예고편뿐만 아니라,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영화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방송된 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한 것이므로, 이를 광고영화로 재제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영 등급 분류가 항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광고 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 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규제혁신을 이루고 영화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윤덕 의원은 "방송에서 이미 심의를 거친 광고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완진무 8건 특교세 48억 확보

완주·진안·무주군 8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8억원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행안부로부터 특교세 총 4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통상 연 2회로 나누어 교부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서 제남선 도로확장포장(10억) △삼례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5억), △삼례 하리-신금간 종점부 연결공사(2억) 현안 3개 사업에 특교세 17억원을 확보했다.

진안군은 현안 사업인 △진안군 양묘장 신축사업 (7억) 과 재난 사업인 △주천면 하양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7억)에 총 14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무주군은 현안 사업인 △장기교 재가설공사(3억), △용포지구 노후상수도 배수관로 개선사업(7억)과 재난 사업인 △안골 소하천 정비사업(7억)에 총 17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로 완진무 주민들의 현안해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오임선 익산시의원,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확정"

익산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부지가 어양동 터질목 부근 시유지(어양동 40-1)로 최종 확정됐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어양동)은 보건복지위원장 재임기간 동부권 노인들의 편의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동부권역은 삼성동, 어양동, 영등동, 팔봉동 등으로 익산시 노인 인구의 28.1%를 차지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권에도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2018년 2월 노인복지관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 여러 후보지를 선정했는데도 수년간 주민 갈등과 의견 충돌로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어오다 6년 만에 부지를 최종 확정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올해 하반기 주민설명회와 공유재산심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르면 2028년에 복지관을 준공할 예정이다.

오임선 의원은 "어양동 이편한세상 부근 노인종합복지관과 병행 건립이 무산된 후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익산시에서 제시한 후보지 외 제3의 부지를 샅샅이 찾아보고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이번 최종 선정된 부지는 시유지로 신흥공원과 큰 도로가 접해있어 최적의 입지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그간의 불편이 해소되고 다양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익산시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복지관 완공까지 지속적으로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민주 한병도 의원, 행안부 특교세 4건 24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 사업 12억원 △웅포곰개나루관광지 환경정비사업 2억원 △목천포전 하천 준설공사 8억원 △왕궁천 하천 준설공사 2억원 등 총 4개 사업 24억원으로, 재해 예방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급한 안전 분야 관련 시설 보수는 물론이고, 주민편의를 높이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특교세 32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달 31일 정읍과 고창지역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3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 정읍시는 △신태인읍 괴동저수지 보수보강공사 4억원,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공사 4억원, △스마트 이동약자 안전서비스 구축 사업 3억원, △정읍시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 조성 및 엘리베이터 연장공사 3억원 등 총 4건, 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창군은 △발효식품단지 조성사업 9억원, △이동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서비스 구축 4억원, △후포 배수갑문 수동개폐시설 설치사업 3억원, △아산면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2억원 등 총 4건,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정읍·고창 모두 '스마트 이동약자 안전서비스 구축 사업'(정읍 3억원, 고창 4억원 특교세 반영)을 통해, 각 동네마다 안전서비스 단말기를 설치해 전동보장구 넘어짐 등 충돌 발생 시 실시간 통합관제센터 알림 및 CCTV 확인 후 신속한 사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노인, 장애인 등) 24시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민주 박희승 의원, 남원 등 특교세 10건 56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지역구 내 4개 시군에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0개 사업 56억원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남원시의 경우 △생활체육시설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사업(6억) △도통 공원 내 화장실 화재 발생에 따른 긴급보수(3억) △산내부운 노후 암거교량 교체사업 (5억) 등 3개 사업에 14억원의 교부세가 확보됐다.

장수군의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선사업(9억) △구선 소하천 정비공사(5억) 등 2개 사업 14억원이 확보됐다.

임실군 역시 2개 사업 14억원의 특교세가 확보됐고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9억) △위생매립장 보강토옹벽 보강사업(5억) 등이다.

순창군은 3개 사업 14억원으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10억) △용산 2교 교량 보수사업(2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2억) 등이 확보돼 교통 및 어린이 안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추경안 등 총 11건 의결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2024년 제1차 추경안' 등 11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9일간의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 사항들을 점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8,374억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3억7천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등 수정 가결했다.

또한, 이날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최저생산비 보장제도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하며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생동감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